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6/22℃ 목포 14/19℃ 여수 14/19℃
단기 4343년 (음력 3월 2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69호 1판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영산강, 아직은 살아있다"

최악 수질 불구 생물 다양성 유지

'물학회' 심포지엄… 하천 정비 신중해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갈대와 물쑥을 비롯한 수생식물의 서식처가 인위적으로 복원됨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하천 준설과 보 건설 등으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한반도 고유어종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되면서, 하천 정비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김창환 전북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생태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서식하고 있는 식물 집단의 분포 및 생육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영산강 하천생태의 식생학적 진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영산강 유역의 '식생 자연도'를 평가한 결과,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은 '보통'등급"이라며 "그나마 생태하천·생태습지 조성 등 영산강 사업으로 하천 서식처가 인위적으로 복원되면 서식 조건의 단순화돼 수생식물의 종류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생 자연도는 식물 서식 여부, 식물 다양성 등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전반을 평가한 것이다.

영산강 유역 내 하천에서 선정된 5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광주천과 고막원천, 화순천 일부 지점 등 32개 조사 지점에서 식물종(種) 다양성 등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점 가운데 4개 지점은 '불량'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14개 지점에서도 침수식물과 부엽식물·부유식물 등이 고루 분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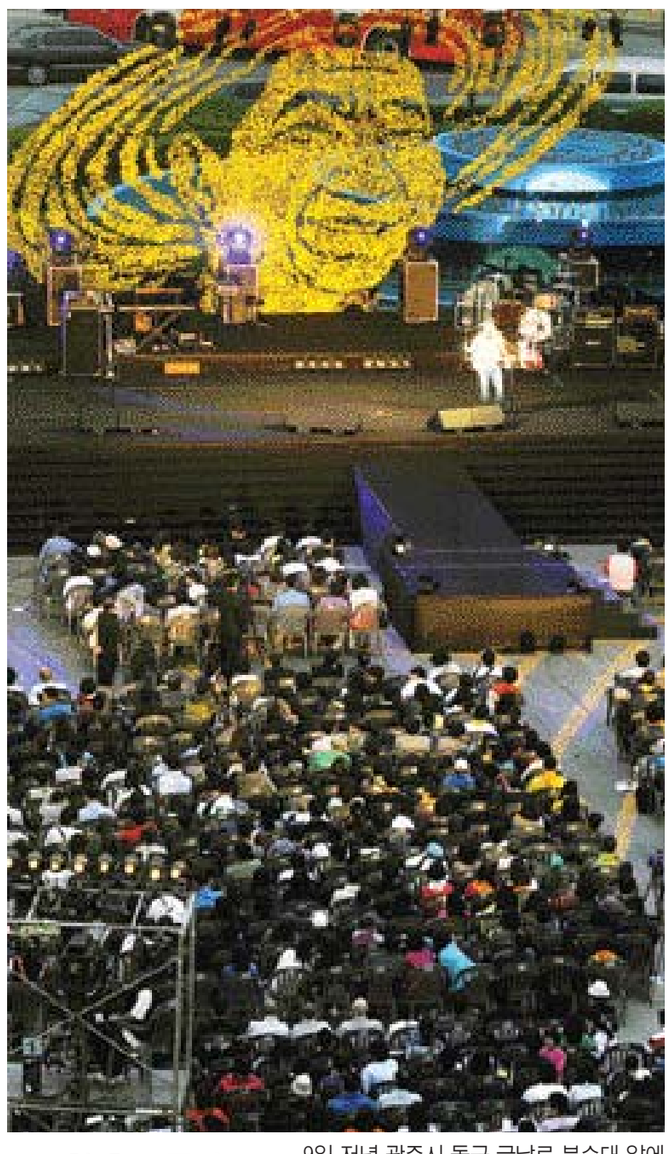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어류의 생태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호남대 생물학과 교수는 '영산강 어류의 분포와 향후 변화'라는 주제 발표에서 "영산강 정비사업에 따른 보 건설과 준설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사업구역 내에서 떡붕어·블루길·배스 등 외래 어종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 설치로 인해 긴몰개, 돌마자 등 고유어종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영산강 사업구역에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 담수어는 16종(27.9%)으로, 4대강 전체 담수어 중 한반도 고유 어종 비율(28.6%)보다 낮다.

또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한 녹색 성장의 대표사업으로 추진되려면 비점오염원의 구체적 개선 내용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최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전·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무현 추모 콘서트 9일 저녁 광주시 동구 금남로 분수대 앞에서 펼쳐진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Power to the People 2010)' 광주공연. 오는 23일 서거 1주기를 앞두고 열린 콘서트에는 윤도현밴드, 강산에, 안치환과 자유, 우리나라, 피아, 노찾사, 문성근·명계남씨 등이 출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0부는 공심위?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 11건

12일까지 마무리…밤잠설쳐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민주당 경선과 관련,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경선 결과를 승인하기 전에 법원에 자문을 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가 9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신청된 11건의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3건. 지난 6일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 광주 남구 제2선거구 광주시의원 후보 경선, 7일 광주 서구 제3선거구 광주시의원 후보 경선 등에 대해 경선을 무효화하고 당선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이 결정된 것은 나주시장 후보 경선 단 한 건 뿐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 진도의 경우 재경선을 하도록 했으나 후보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광주 남구와 서구의 경우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아직도 당원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과 조작 의혹, 선거인단 선정 부정, 경선 관리 부실 등을 놓고 7건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판사로 구성된 민사10부의 즉각적이고도 준엄한 결정은 정당 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관여를 자제해온 과거 법원의 행보와는 다른 양상. 판사들은 각자에게 배당된 사건을 심리한 후 부장판사가 배석한 가운데 밤잠을 설치며 법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공천은 광주지법 민사10부에 물어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판결하고 있는데도 정당 내부의 검증작업도 거치지 않은 후보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후보 등록일인 13일 이전까지 남은 소송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선거구마다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당 지도부가 2개월 후에 있을 전당대회에 눈이 멀어 원칙을 상실한 것이 경선 잡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지경·최경호기자 jkpark@

13~14일 후보 등록…각당 선대위 출범

이번주 지방선거 국면 본격 돌입

6·2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한다. 〈관련 기사 3·4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중간 심판 성격을 띠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어 여야 간에 사활을 건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여야는 곧 공천을 마무리 짓고 13~14일 후보등록을 거쳐 20일부터 열전 13일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2일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민주당은 9일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김근태·한광옥 상임고문, 장 상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당선대위를 발족했다.

광주·전남에서도 한나라당 전남도당이 지난달 30일 도 선대위를 발족했으며, 광주시당은 11일 오후 2시 광주시당 5층 대강당에서 시 선대위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11일 당 지도부가 광주로 총 출동해 광주시와 전남도 후보 당선자 대회 및 공천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수여식에 앞서 당 지도부와 광주·전남 모든 후보들이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의 안방 수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3선 성공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들의 선전 ▲부부 군수 당선 ▲국민참여당과 평화민주당의 선전 여부 등이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병완 前 청와대비서실장 서구의원 출마

이병완(56)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주 서구 기초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이병완 전 실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참여당 창당 당시부터 기초의원에 출마할 생각이었다"며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참여당 광주시장 후보가 된 만큼 홀가분하게 서구의원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김해 시의원 출마를 검토한 바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구의 살림살이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생각"이라며 "주변에서는 신선하다고 놀라지만, 아직은 당선 여부가 걱정되는 기초의원 후보일 뿐"이라고 몸을 낮췄다.

국민참여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 일부는 이 전 실장의 출마 철회를 완곡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당을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중앙당에서 중책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에서 활동하다 밀려난 인사들이 지역에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자리만 노리던 것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신선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